

#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계엄

##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영상학과 교수



“광주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쏟더라.”

어머니께서 1980년 5월의 비극 이후 안절부절하시다가 추석 이후에 겨우 시간을 내서 외할머니와 이모를 보러 광주에 다녀오셨다. 집에 돌아오셔서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며 위의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모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함께 버티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리둥절했다. 당시까지 정부 발표로 ‘폭동’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던 상황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

천동별거승이 같은 고등학생으로 대학생들의 시위도 구경하고, 최루탄을 뒤집어 쓰고 한밤에 집에 들어오던 대학 신입생 누나도 보았으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지도 못했다. 한 친구가 자기 동네의 고등학생 하나가 광주의 시위대에 합류하려 했다는 소식에 치기어린 부러움이 담긴 탄성을 몇몇과 함께 내지르기도 했다. 나중에 광주로 갔다는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았으나,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누구인지, 정말 그런 일이 났는지, 그저 소문이있을지도 모른 채 지나갔다.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 하나는 이발소에 가서 만난 다른 학교 다니는 애에게 ‘우리는 곧 두발 자유화 요구할 거다’라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 생회 공동행동 주최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소리를 했다. 그가 학생 데모를 꾸미고 있다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처에 끌려가고, 기관원이 학교까지 들이닥쳐서 그와 친한 애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계엄포고령 위반이라고 했다. 이후 같은 반의 절렁대던 친구 하나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머리를 뺨뺨 깎은 채 햇볕에 탔는지, 부은 건지 벌건 얼굴로 돌아왔다. 온 교실을 들썩거리게 하며 떠돌던 친구가 낮을 잃고 멍하니 자리에 앉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업 끝날 때 맞춰 학교까지 데리러 온 그의 어머니를 따라 등교했던 가방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가곤 했다. 한참 나중에 그 친구가 삼정교육대에 끌려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 시간이 지나 학교에 삼정교육대에 몇 명을 무조건 보내라고 할당이 내려왔다는 말도

들었다. 이번 느닷없는 계엄 선포 후에 만난 선배가 1980년 5월 18일 이른 아침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줬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던 선배가 있었다.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던 시절인지라, 그 교사는 토요일 오후에 아예 학교 연구실로 와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녘에 기지개도 켜고 체조도 할 겸 연구실이 있던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공수부대원들이 눈에 띄었다. 하필 그 교사가 군생활을 공수부대에서 했다. 무슨 연유로 들어온 지 생각도 못하고, 군대 후배를 본 반가움에 그 형이 공수부대원들을 불렀다. 인사를 건네고 어찌고 할 것도 없이 공수부대원들이 그 선배에게

달려들어서 마구 폭행을 가했고, 거기서 기절하고 한참 후에야 병원에 실려 갔다. 그 충격으로 학업을 더 이상 잇지 못하고, 교사직도 그만 두고, 정신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

박물관 수장고에나 있을 법한 계엄이 현실로 다가오며 1980년 5월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꺾꺾 눌러두고 있던 것들을 꺼내어 서로 나누기도 했다. 그런 야만의 폭력이 판을 치던 시절의 아픔과 죽음에까지 이른 상처들이 광주와 떨어져 있던 많은 이들에게도 너무나 선연하여, 계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송구스럽다. 그런데 그 단어를 가져다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로 같은 무계엄양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다. 자기 눈에 든 티끌이 상대의 눈에 박힌 들보보다 더욱 위중하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친다. 그들은 공감이란 자신의 새털 같은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기쁨에 발맞추는 경우만 작동한다고 여긴다. 타인의 아픔이란 능력이 부족한 탓이고, 그 세사사의 이치라며, 아픔에 모멸감까지 들이붓는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냐... 어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

명예의 전당에도 현액된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 포수라는 요기 베라의 맞는 듯 들리는 듯 뻗는 말을 의미하는 ‘요기 줘’ 중 가장 유명한 표현을 계엄령 다음날 아침에 들었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 그렇듯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처럼 나온 계엄령이었다. 선포 방송 이후 숨 가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다 새벽 3시경에야

겨우 침대에 들었다. 자는 등마는 등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선포 당사자가 국회의 해제 결의를 수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숨 돌리며 안심이 좀 되었지만 목욕을 해야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겠다 싶어 스포츠센터 사우나에 목욕만 하러 갔다. 센터 건물로 들어서는데, 한 양반이 비웃음인지 득의만만한 웃음인지, 헛갈리거나 기묘하게 합쳐진 표정으로 전화에 대고 같은 소리를 두 번이나 연달아 하며 나오고 있었다.

요기즘 표현이 대개 그러하듯 두 가지 상반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계엄 선포했던 이가 해제한다고 말했지만, 어떤 짓을 또 할 지 모르니까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계속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히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둘째, 어찌다가 일단 물러났지만 다시 계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다시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

투표조차 하지 못한 첫 번째 탄핵 발의 이후,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다시 시도하여 겨우겨우 가결선을 내 표 넘겨 직무정지를 이끌어냈다. 요기 베라의 표현을 쓴 이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첫째에서 언급한 감시의 눈이 희미해질 때, 둘째의 뒤집기 기회를 살릴에 옮기려는 이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쓰자면, ‘암약’하는 이들이 ‘괴물’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또 말없이 눈물을 흘치어서야 되겠는가.

## 변화하는 영산강·섬진강

기고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한 물, 도로에 차오른 빗물은 어디로 갈까.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출퇴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번 쯤은 떠올려 봤을 질문이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과 분뇨, 빗물 등은 하수처리시설을 거쳐 하천과 바다로 다시 돌아간다.

물이 순환한다는 것은 ‘하수’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WASH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 폭우와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강우 시 하수관로 월류수, 미처리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으며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수도 정비 대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의 하수도 보급률은 90.9%에 도달했다. 10년 전보다 6.6%나 높아졌지만 전남도 13개 시·군의 평균 보급률은 67.9%로

전국 평균인 95.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도서·연안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많이 위치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하수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꾸준히 힘써왔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거에 소외되었던 지역에도 하수도 시설이 점차 증가했다. 그동안 공공하수도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와 빗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했지만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졌던 하수도 계획은 인근 지자체의 시설 여유용량과 유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방류수역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유역차원의 하수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2년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제도화했다. 이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영산강·섬진강 등 공공수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생활계 오염원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13년부터 영산강 상류 지역을 시작으로 탐진강, 이사천 등이 위치한 남해서부까지 총 5개 단위유역(영산강 상·하류, 섬진강 하류, 서해남부, 남해서부)에 대해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했다. 5년마다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섬진강 하류 및 남해서부, 영산강 상·하류 유역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최근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하수도 설치·운영 방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번 변경 계획에는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관리 대책과 부지내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시설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역 단위의 하수도 정비계획이 실현되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으로 통합물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보약, 홍삼은

## 북교당한약방

40년 오직 한 길!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